남조선인권실상을 파헤쳐본다

인권동토대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년

머 리 말

인권은 인간의 자주적권리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수 없으며 그것을 보장하는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마땅한 의무이다.

지금으로부터 75년전인 1948년 12월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인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그 보장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며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세계의 곳곳에서는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비극적사태가 계속 발생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자주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정치적권리와 일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비롯한 경제문화적 권리, 온갖 범죄와 학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있으며 침략자의 군화밑에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하여 지금 남조선은 자살률 세계 1위, 최악의 산업재해지역, 녀성들의 생지옥, 범죄의 활무대 등 각종 오명이란 오명은 다 쓰고있다.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정치적자유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동토대인 남조선의 인권실상을 파헤쳐본다.

차　　례

1.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 (5)

□ 허울뿐인 선거의 권리 ……………………………… (5)

□ 짓밟히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권리 …… (8)

2.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권리 ……………… (17)

□ 몰아치는 실업과 해고의 칼바람 ………… (17)

□ 최악의 산업재해지역 ………………………………(20)

□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사회 ………………… (26)

□ 미래가 없는 땅 …………………………………… (33)

□ 생명우에 돈을 놓는 세상 ……………………… (39)

□ 자살률 세계 1위………………………………… (47)

3. 범죄와 녀성천시, 패륜패덕의 란무장 ………… (54)

□ 각종 범죄의 활무대…………………………… (54)

□ 녀성들의 생지옥 …………………………………… (63)

□ 학대받는 사회적약자들 ……………………………… (68)

□ 《허가》받은 인권유린장 …………………………… (76)

□ 반인민적악정이 초래한 인재 ……………………… (81)

4. 침략자의 군화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 (87)

1.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 허울뿐인 선거의 권리

사회적존재인 인간이 초보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회정치적권리가운데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는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말할수 있다.

선거는 사회적집단성원들이 자기의 의사와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사회정치적권리의 실현형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보적인 정치적권리가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남조선에서는 선거가 근로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 정치활동과는 정반대인 파쑈통치배들의 권력야욕실현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정치적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력대적으로 남조선에서의 선거들이 폭압과 테로, 사기와 매수 등 가장 야수적이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진행되여왔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1960년에 일어난 4월인민봉기의 도화선으로 된것도 리승만역도의 《4선당선》을 날조한 3.15부정선거였으며 1987년 6월인민항쟁이 폭발한것도 《체육관선거》로 군사파쑈독재를 연장하려는 전두환역도의 음모때문이였다.

이처럼 선거를 통해 자기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해 보려는 인민들의 투쟁이 적지 않게 벌어졌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선거들은 협잡과 폭력, 고소와 고발, 협박과 매수 등 온갖 패륜과 부정부패가 란무하고 인간의 정치적권리실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치광대극에 불과하다.

남조선은 정치풍토자체가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를 실현할수 없게 하고있다. 현재 남조선에는 여러가지 간판을 내건 당들과 정치단체들이 존재하고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당이나 단체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권리를 진정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나 강령이 없이 선거철에만 그들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온갖 감언리설을 늘어놓고있다.

모든 선거들이 그러하지만 그중에서도 인간의 정치적권리가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는것은 《대통령》선거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 시기는 두말할것도 없고 가장 최근시기인 2022년 3월에 진행된 《대통령》선거때 후보로 출마한자들의 면면만 따져보아도 선거의 허황성과 기만성을 잘 알수 있다. 극우보수검찰출신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인간들 지어는 당선되면 2개월안에 주민들에게 《10만US$씩 주겠다.》는 허황한 《공약》을 들고나온자까지 있었다. 그들의 경력들도 각종 범죄와 부정부패, 도덕적저렬성과 무능 같은것으로 얼룩져있었다. 거기에다가 정치적리념이나 정책 같은것은 어물쩍 넘기고 《선거운동》이라는것도 태반이 자신에 대한 미화분식과 상

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중상, 고소와 고발 같은것뿐이였다.

시궁창에서는 장미꽃이 피여날수 없는 법이다. 권력에 대한 야욕과 저 하나의 부귀영화를 실현할 망상에만 사로잡힌 이런자들만 정치판에 얼른거리니 많은 인민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거나 요설에 속아서 표를 던짐으로써 윤석열역도와 같은 검사깡패, 정신적, 도덕적저능아, 무능아가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는 희비극이 벌어진것이다.

남조선에서의 선거는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금권선거이기도 하다.

각종 선거에 후보로 나서려면 《기탁금》, 《등록비》등 잡다한 명목의 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대통령》선거에 나서려면 당내 후보로 출마할 때부터 거액의 《기탁금》을 내야 하며 당의 후보로 확정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막대한 액수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당대표》를 하자고 해도 일반근로자들은 평생 가져볼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먼저 내야 선거에 나설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뿐이 아니다.

TV광고제작과 선전물제작살포, 《현수막》제작, 선거사무실임대, 방송출연, 《선거운동원》들의 임금 등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이 선거에 들어간다. 방송연설을 한번만 하자고 해도 억대의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2023년 3월에 진행된 《국민의 힘》 대표선거에서도

대표후보로 나선자들은 남조선돈으로 평균 3억 2 000만원, 최고위원후보로 나선자들은 평균 1억원이 훨씬 넘는 선거자금을 공식적으로 지출하였으며 그중 돈을 제일 많이 쓴자가 대표로 당선되였다.

그러니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것은 한갖 꿈에 불과하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괴뢰헌법조항은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로대중의 정치적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남조선의 실상이다.

□ 짓밟히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사회정치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것이며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편적인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와 공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에는 《매 개인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매 개인은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지난 수십년세월 언론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심히 억제되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들이 야수적으로 탄압당해왔다.

특히 윤석열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후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는 빈껍데기마저 없어졌다.

역도는 주요언론들인 《KBS》, 《MBC》가 이전 《정권》하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윤석열역도는 《MBC》가 2022년 9월의 미국행각당시 미국회것들을 상말로 욕한 제놈의 망언을 제일먼저 보도하였다는 리유로 그해 11월에 있은 동남아시아행각때 이 언론사 취재진의 《대통령》전용기탑승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괴뢰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AP, 불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외신들까지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적대적언론관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해나섰다.

그러나 윤석열역적패당은 《MBC가 자막조작, 외곡 및 편파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것이였다.》고 변명해나섰다.

윤석열역도의 언론탄압은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에 대한 탄압책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는 지난 2019년 8월 당시 검찰총장이였던 윤석열역도가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해나서고 당시 괴뢰법무부 장관이였던 조국과 그 일가족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이를 《검사들의 반란》으로 락인하고 그 부당성을 적극 선전하였다. 또한 윤석열역도가 《국민의 힘》소속 《대통령》후보로 나섰을 때에는 녀편네 김건희가 유흥업소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매춘부노릇을 한것을 비롯하여 년의 경력위조, 주가조작, 검찰패들과의 유착에 대해 폭로하였고 김건희의 에미의 부정부패와 윤석열

역도가 미신에 빠져있고 김건희가 윤석열역도를 조종하고있다는 사실 그리고 윤석열역도가 집권하면 자기를 비판한 언론들을 탄압할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7시간 록취록》을 공개하였다.

《MBC》도 제20대 괴뢰대통령선거당시 윤석열역도와 녀편네 김건희가 련루된 부정부패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으며 윤석열역도의 집권후에도 김건희가 련루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 년의 론문표절과 관련한 사실들을 폭로함으로써 윤석열역도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에 앙심을 품고있던 윤석열역도는 집권후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에 탄압의 칼질을 해댔다.

역도는 《국민과의 소통》으로, 《룡산시대 <대통령실>의 상징》으로 요란하게 광고하였던 《출근길략식기자회견》이라는것도 제놈의 무능과 추악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화하자 걷어치웠고 《대통령》관저를 청와대에서 룡산으로 옮길 때 점쟁이인 《천공스승》이 관여했다는 것을 제일먼저 폭로한 기자도 《허위사실류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탄압해나섰다.

윤석열패당의 이러한 언론탄압에 대해 국제기자련맹은 《언론을 협박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단죄하였으며 미국의 어느한 방송 역시 윤석열역도가 거꾸로 찍힌 사진을 내보내며 역도의 언론탄압을 풍자하였다.

《전국언론로동조합》을 비롯한 언론단체들도 《윤석열<정부>가 저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한 개인복수에 매달리고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당국의 언론탄압을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윤석열역도는 언론들의 합법적인 활동뿐 아니라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마구 짓밟고있다.

2022년에 한 고등학교학생이 그린 만화 《윤석열차》가 만화전시회에서 최우수작품으로 평가되여 금상을 수여받고 국제만화축전에까지 전시된 일이 있었다.

만화는 윤석열역도의 상통을 형상한 증기기관차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질주하는데 놀라 사람들이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있었다. 특히 만화는 기관사자리를 차지하고 렬차를 미친듯이 몰아대면서 호들갑을 떨고있는 김건희의 상통과 객실마다에서 서슬푸른 칼을 뽑아들고 윽윽대고있는 검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윤석열《정부》는 사실상 한갖 녀편네의 조종을 받으며 민심에 역행하고있는 《검찰공화국》이라는것을 신랄하게 폭로하였다.

만화를 본 사람들은 고등학교학생의 그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나어린 학생이 현 《정부》의 어지러운 내면세계를 명백히 형상하였다, 그림에 금상을 수여한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였다.

그렇게 되자 윤석열패당은 외국의 정치만화를 그대로 본딴 《표절행위》니, 《륜리범죄》니, 《경고한다.》느니 하며 만화를 그린 학생과 만화전시회를 주관한 단체를 로골적으로 탄압하였다. 뿐만아니라 역적패당은 윤석열역도의 죄행을 풍자한 그림전시회를 《국회》에서 열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으며 길거리에 역도의 풍자만화

를 전시한 만화가도 탄압하였다.

2023년 4월에도 역적패당은 윤석열역도와 너편네 김건희의 죄행을 풍자한 시 《후작부인》을 시작품전시회에서 무단철거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이렇듯 합법적언론은 물론이고 개별적인 주민들의 글 지어는 나어린 고등학교학생의 그림까지도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현실이다.

악법중의 악법인 《보안법》에 의해서도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처참하게 짓밟히고있다.

주민들이 공화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글을 쓰거나 공화국의 정책에 대해 긍정만 해도 《보안법》의 《고무, 찬양죄》, 《리적표현물제작, 배포, 소지죄》에 걸려 감옥에 끌려가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비극적현실은 부정의가 정의를 억누르는 암흑천지에 대한 적라라한 고발이다.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민족적화해와 조선반도평화를 주장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의로운 단체들과 인사들이 《보안법》의 쇠사슬에 묶이워 고통을 당하는 일이 더욱 늘어나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은 2022년 6월과 7월 온 세계가 찬양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출판보급한 《민족사랑방》과 한 학자를 《보안법》에 걸어 탄압하였으며 같은 죄목으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과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경남진보련합》 교육국장과 정책위원장, 《통일촌》 회원을 비롯한 수많

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박해하였다.

윤석열역도는 심지어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로조》라는 감투를 씌워 《보안법》에 걸어 탄압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평화적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유린당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초기부터 사람들이 《룡와대》주변에서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리는것을 막아보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비렬한 추태를 부리여 만사람의 비난을 받았다.

윤석열역적패당은 2022년 10월 중고등학생들의 단체인 《초불중고생시민련대》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초불집회를 열겠다는 선전물을 인터네트에 올리고 윤석열역도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집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될수 있게 응원해달라고 하면서 모금운동을 벌린데 대해서도 《초불중고생시민련대》 상임대표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25살 난 정치운동가이며 《내란선동》으로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출신이다, 나어린 학생들을 리용하여 《정부》지원금을 뜯어내다 못해 퇴진을 운운하며 《헌법》질서를 흔들고있다, 학생들을 동원하는것은 미래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고아대며 여론을 오도하였다.

《국민의 힘》패거리들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였던 《통합진보당》의 후예들이 아직도 《정권》퇴진을 선동하며 날뛰고있다,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이 어린

학생들까지 선동도구로 리용하면서 반《정부》음모를 꾸몄다, 선전물을 류포시킨 배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분주탕을 피워댔다.

이와 관련하여 《초불중고생시민련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중고등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당하게 협박한것이다.》, 《중고등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던 <윤석열차사태>에 이어 중고등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제2의 윤석열차사태>이다.》라고 윤석열패당의 탄압만행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집회와 시위까지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2022년말 《민주로총》산하 《화물련대》는 《안전운임제》를 《법》적으로 고착시킬것을 요구하여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진입하였고 여기에 《철도로동조합》, 《비행장항만운송본부》, 《서울교통공사로동조합》 등 운수부문 로동자들이 련대파업투쟁을 벌리겠다고 하면서 호응해나섰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로동자들과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병원의 간호원들도 로동안전과 산업재해방지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총파업투쟁에 궐기해나섰다.

이에 대해 윤석열역적패당은 《정치파업》, 《불법파업》이라고 몰아대다 못해 파업을 중지할것을 강박하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것까지 공포하였다.

《업무개시명령》은 괴뢰정부가 파업을 벌리는 로동자나 로동조합에 업무에 복귀할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으로서 이를 어기는 경우 자격정지와 3년이하의 징역, 2만 3 000US$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력대 괴뢰집권자들은 로동계의 총파업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업무개시명령》을 파업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에 대한 위협수단으로만 사용하였을뿐 실제 발동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역도는 《업무개시명령》을 2차에 걸쳐 내리였으며 이에 반발하는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집권초기부터 《반로동, 친재벌정책》을 공식화하고 생존권사수를 위한 로동계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린 역적패당의 인권유린행위는 2023년에 들어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역적패당은 《민주로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로동조합》, 《전국금속로동조합》 등 여러 로동운동단체들의 전, 현직간부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반《정부》투쟁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괴뢰정보원과 경찰을 내몰아 《민주로총》본부를 비롯하여 수십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또한 2023년 상반년기간을 로동운동단체들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 파업투쟁을 벌리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그런가 하면 초과근무를 거부하고 로동안전대책마련을 요구한 《건설로조》를 《건폭(건설로조폭력배)》으로 중상모독하면서 강력히 단속하라고 악청을 돋구었고 《민주로총》본부를 《보안법》위반에 걸어 압수수색

하였다.

이에 항거하여 2023년 5월 《건설로조》의 한 로조원이 《정당한 로조활동을 한것뿐인데 윤석열검찰독재의 제물이 되였다.》, 《로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놈 퇴진시키고 로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집회현장에서 분신자살하는 비극적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렇듯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집회와 시위까지도 악착하게 탄압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파쑈적폭거는 남조선의 참담한 인권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2.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권리

□ 몰아치는 실업과 해고의 칼바람

《실업문제가 우리만이 겪는 고통은 아니지만 문제는 남조선의 실업자들이 다른 나라의 실업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정신적충격을 받고있다는 점이다. 특히 희망퇴직이나 리직 등 <자발적인 실업자>보다 어느날 예고도 없이 직장에서 쫓겨난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당하는 고통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가 구멍뚫린 실업자사회안전망을 수수방관하는 속에 실업자들의 생계는 하루하루 벼랑끝으로 내몰리우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심각한 실업자문제와 관련하여 터져나오고있는 성토이다.

로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로동을 진행할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량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고 휴식할 권리도 가진다. 로동의 권리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며 로동할 권리는 곧 생존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초보적인 권리마저 짓밟히고있다.

만성적인 실업, 이것은 지난 수십년간의 고질적인 병페이며 항상 수백만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우글거리고있다.

몇해전 괴뢰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공식실업자는 101만 2 000명, 여기에 취업준비생, 취업포기자, 1주일간 로동시간이 18시간이하인 사람들을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450만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이보다 실업자가 더 많다는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청년실업자가 해마다 늘어나 사회적난문제로 되고있다.

2016년에 12.5%였던 청년실업률은 4년동안에 그 2배이상으로 증가하여 2020년 3월에 이르러 26.6%까지 치솟았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후 실업자수는 근 580만명, 비정규직로동자의 수는 무려 820여만명에 달하고있으며 이는 력대 최악의 실업률로 평가되고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일자리참사가 민생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더욱 몰아가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업자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은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악정때문이다.

괴뢰당국의 《친재벌, 친기업정책》으로 하여 재벌들과 기업주들은 《기업경영조건》, 《기업부담증대》라는 구실로 로동자들을 제 마음대로 해고하고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직업분류체계도 주민들의 로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기업이나 회사에 림시로 고용된 비정규직로동자들은 정규직로동자와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시간동안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내도 임금을 훨씬 적게 받고있는가

하면 계약도 맺지 못하고 일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당하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기업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로동자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실업은 생존권을 박탈당하는것과 같다.

로동자들의 파업과 시위현장들에서 울려나오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은 항시적으로 생존을 위협받고있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후 로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지고있다.

재벌들과 기업들은 역적패당의 《친재벌, 친기업, 반로동정책》을 걸고 제 마음대로 해고바람을 일으키고있다.

2022년 8월 식료기업인 《하이트진로》는 《화물련대》소속의 화물차운전수들의 파업을 구실로 그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강박하면서 132명을 집단해고하였다.

그해 11월에는 다른 식료업체인 《푸르밀》이 경영악화를 구실로 수백여명에 달하는 전체 회사직원들을 정리해고하였다.

2023년에 들어서서도 은행들과 기술기업들이 저저마다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사회전반에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있다.

이상의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것으로서 지금 이 시각도 수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업위기속에 생존의 권리를 짓밟히우고있다.

실업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당신은 해고되지 않

았습니까?》라는 말이 인사말로 통용되고있겠는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남조선위정자들에 의해 실업은 남조선에서 불치의 병으로 되고있다.

□ 최악의 산업재해지역

로동조건과 환경보장은 로동권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유리한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평등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혀져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로동조건과 환경보장이라는 말을 애당초 찾아볼수 없으며 로동자들은 극도로 렬악한 환경에서 혹사당하며 비인간적인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그러다나니 로동현장들에서의 산업재해사고들이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있다.

추락, 폭발, 압사, 감전, 붕괴, 질식, 화재 등 꼬리를 물고일어나는 각종 사고들로 하여 매해 수천명의 로동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산업재해사고가 끊기지 않는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목숨보다 리윤을 더 중시하는 기업들과 그것을 비호하는 위정자들때문이다.

경제적리윤만을 추구하는 재벌들과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로동안전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죽음의 고역장들에 마구 내몰고있다.

그러다나니 각종 사고들이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2월 당진의 《현대제철공장》에서 일어난 벨트콘베아에 의한 인명사고, 2020년 4월 어느한 건물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고, 2021년 1월초 광주의 건물신축공사장에서 건물이 붕괴되여 6명의 로동자들이 사망한 사고, 2021년 4월 평택항에서 일하던 로동자가 집함에 깔려 사망한 사고, 5월 창원에서 30대로동자가 대형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를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들은 모두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초보적인 안전대책조차 세워지지 않은 작업장들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들이다.

기업주들에게 있어서 로동자들이란 《말하는 로동도구》일뿐이다. 그러니 로동자들이 사고로 생명을 잃어도 례사롭게 여기고있다.

언제인가 자동차업체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직로동자는 《남에게 밟히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싶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였다.

《업체에서 비정규직로동자들은 인간대우를 받지 못하고 업주들에 의해 살인적인 로동만을 강요당하고있다. 로동자들이 일하는 장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한다. 업주들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을 애당초 사람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동차부속품이나 기계는 조금만 손상이 되여도 큰 변이라도 난듯이 고아대지만 로동자가 다치거나 기계에 깔리는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흔히 있을수 있는 일로 무난히 여긴다.

이 땅에서 로동자들은 기계부속품보다 못한 인간, 무권리한 존재이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이후 로동자들의 인권은 더욱 여지없이 짓밟히우고있다.

2022년 10월 경기도 평택의 빵공장에서 23살의 녀성로동자가 혼합기에 말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밝혀진데 의하면 공장의 로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로동환경은 너무나도 렬악하였다. 그날도 엄청난 생산량을 할당받은 녀성로동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몇시간전 친구에게 《난 이제 죽었다.》라는 손전화통보문을 보냈다고 한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회사측이 그의 시신을 옮긴 다음 불과 몇시간후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듯 다시 생산을 시작한것이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인은 이렇게 썼다.

《동양최대규모라는 SPC평택공장은 반도체공장 못지 않은 첨단위생설비를 자랑한다. 먼지 하나 묻을가 빵의 <안전>을 귀하게 여기는 공장이지만 사람의 안전은 다르게 취급한다. 이곳 로동자들은 주야 맞교대로 12시간씩 빵을 만든다. 각자 하루 할당량을 채우려면 위생실에 갈 시간도, 밥먹을 시간도 부족하다. 과로는 사고를 낳는다. 이들에게는 피로를 풀 휴계실도, 사고를 감독할 관리자도, 불의의 순간 목숨을 지켜줄 안전덮개도, 자동멈춤장치도 없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2인1조 근무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이 거대한 공장은 사람이 빵을 모시는 신전이다.

이 공장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한다. 사람은 존엄을 위해 고된 로동도 견딜수 있지만 존엄이 없는 로동은 그자체가 죽음과 다름없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가. 빵이 사람을 먹이고 살려야지 사람이 빵을 모시는것은 이상한 세상 아닌가. 무슨 놈의 세상이 빵을 만들다 사람이 죽는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로동자는 인격과 인권을 가진 사회적존재가 아니라 《말하는 도구》, 《숨쉬는 기계》로 전락된 인권동토대 남조선의 실상이다.

괴뢰당국은 산업재해를 방지한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규정들을 내놓고있지만 그것은 로동자들을 기만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위선에 불과하다.

2022년 1월말부터 7개월동안만 하여도 400여건의 로동재해가 발생하고 432명의 로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56건,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불과 21건뿐이였다.

지금 윤석열보수패당은 로골적인 《친기업, 반로동정책》에 매여달리며 로동자들의 안전을 더욱더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역도는 《규제는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 신발속의 돌멩이다.》, 《기업이 성장하는것이 경제장성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들이 힘껏 달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근로제를 비롯하여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고있는 조치들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또한 기만적인 《로동개혁》놀음으로 근로자들을 보

다 비참한 처지에 몰아넣으려 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추구하는 《로동개혁안》의 기본내용중의 하나가 로동자들의 한주일 로동시간을 69시간까지 늘이는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항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작업장들에서 기업측이 강요하는 장시간 로동에 시달리고있는 로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아닐수 없다.

기업들이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고, 로동자들의 육체적한계도 고려하지 않고 장시간 고역에 내몰고있는것은 보편적현실이다.

2016년 5월 서울의 지하철도 구의역에서 비정규직로동자가 전동차에 치워 사망한 사고,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벨트콘베아에 끼워 비정규직로동자 김용균이 사망한 사고, 2022년 6월 《대한통운》회사소속 배달원이 사망한 사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고들이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는 일터에서 매일 12시간이상씩 고된 로동에 시달리다가 발생한 사고들이였다.

화력발전소의 로동현장에서 사망한 김용균의 어머니는 2023년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1970년에 전태일렬사가 로동시간단축과 로동환경개선을 요구해서 분신사망한 때로부터 50여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

산재사고가 없으면 <정부>가 세금혜택을 주는데 이 회사는 5년간 20억원을 받았다. 위험한 일을 하청회사에 떠넘겨 로동자가 많이 죽어도 원청회사는 아무도 안

죽은것처럼 기록되기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을 더 늘이려 하고있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과 각계는 《장시간 로동후에 찾아오는것은 <휴식>이 아닌 <죽음>이다.》, 《로동자건강과 생명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건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정부>의 주 69시간제는 <기절시간표>》, 《<대통령>부터 주 69시간이상 죽도록 일해보라.》고 울분을 터치고있다. 외신들도 《이미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고있는 남조선에서 주 최대 69시간 로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망칠것이다.》, 《악명높은 장시간 로동의 일중독문화가 있는 남조선은 과도한 로동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 〈과로사〉라는 이색적인 단어가 존재할 정도이다.》고 하면서 《과로사》를 발음그대로 《Kwarosa》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명 같은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남조선이야말로 세상사람들의 평가그대로 최악의 산업재해지역이다.

□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사회

지금 남조선은 사회의 1%를 차지하는 특권족속들은 온갖 특전, 특혜를 다 누리며 더욱더 부유해지는 반면에 99%를 차지하는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무권리와 멸시속에서 나날이 더 비참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근로자들의 생지옥으로 되고있다.

최근 언론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제일 부유한 0.1%의 부자들의 년소득은 빈곤층 20%의 년소득의 1 400배에 달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현상은 주택문제 하나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먹고 입는것과 함께 쓰고살 집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절대다수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자기의 집을 마련하는것은 이룰수 없는 꿈으로 되고있다.

2021년에 한 단체는 《현재 임금로동자의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서울의 83㎡짜리 아빠트 집 한채를 사려면 36년이 걸린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집값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주민의 46%가 자기 집이 없이 세집에서 살고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초보적인 생활조

건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반지하주택에서 20만세대가 세방살이를 하고있다.

이러한 주택 아닌 주택들의 생활환경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여기는 종로 쪽방촌이다.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골목에 사람들이 군데군데 앉아있는 광경이 흡사 사창가 같다. 금시라도 무너질듯한 건물외벽엔 나무사다리들이 엉켜있다.》

《집이라고 할수도 없다. 4평 공간에 방을 12개나 만들었다. 화재도 잘 나고 가림막들이 얇아 옆집소음도 크다. 이것도 집이라고 할수 있나. 그냥 하늘만 가리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어느한 잡지에 실린 서울의 쪽방촌 실태이다. 복도를 가운데 두고 여러 세대가 사는데 제각기 1호실, 2호실 하는 식으로 방번호를 붙였다.

0.5～1.5평의 방에 위생 및 세면시설이 한곳에 같이 있고 부엌과 방이 따로 없다. 한두명이 앉거나 누워도 숨이 가쁜데 어떤 집에서는 4명도 산다. 빈민들이 사는 이런 쪽방촌이 서울에만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그나마 세방살이할 돈마저 없어 판자집, 비닐집 등 집 아닌 집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있는 세대도 수십만세대나 되며 이것도 없어 방황하는 로숙자도 수만명이나 된다.

그러면 결코 집이 없어서 집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것인가.

그렇지 않다. 새로 짓는 주택이 없어서가 아니다. 집을

지어도 그것이 주민들의 주택문제해결에로 이어지지 않는것이 문제이다. 돈많은 부자들은 집을 몇채 지어 몇십채씩 가지고 부동산투기행위로 배를 불리우고있다.

윤석열역도가 틀고앉아있는 《룡와대》의 참모들만 놓고보아도 그중 26%가 두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있다고 한다. 2022년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이 폭로한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정권》의 장관, 차관들이 소유한 부동산재산만 해도 평균 21억 3 000만원에 달하고 그가운데서 《법무부》 장관은 무려 53억 1 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두채이상의 주택 또는 비거주용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장관, 차관들은 수십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최근 5년간 주택구매건수가 제일 많은 1 000명이 사들인 주택만도 4만 4 000여개, 총매수금액은 근 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집권하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느니,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느니 하는 달콤한 말로 유권자들을 속여넘긴 윤석열역적패당은 이제 와서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는다면서 《부동산규제》를 풀어놓아 집값상승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역적패당의 부동산규제완화조치와 다주택자대출규제해제조치로 하여 집값이 엄청나게 뛰여오르는 바람에 일반평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데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올해 《예산안》가운데서 《공공임대주택예산》을 30억US$이상 삭감했고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예산

은 《공제항목》에 넣어 아예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단칸짜리 집조차 가질수 없어 가족이 뿔뿔이 갈라져 사는 세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청년들속에서 집을 마련할수 없어 결혼을 포기하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는 형편이다.

결국은 돈있고 권세가 있는자들만이 부동산들을 차지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제 집이 없어 월세와 전세 등 높은 임대료를 내고 남의 집에서 림시로 살면서 고통받고있다.

특히 윤석열역도의 집권이후 은행리자률이 급격히 오르면서 은행에서 무리하게 돈을 대부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까지도 다달이 리자도 물기 힘들어 헐값에 다시 집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였다.

지금 가난한 절대다수 인민들은 돈이 없어 제 집 한채 마련할수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사회와 당국, 정치권을 저주하고있다.

언제인가 잡지에 이런 글이 올랐다.

《집을 구하러 다닌지 벌써 한달하고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헤매고있다. 처음에는 내게 주어진 권리라 당당하게 집을 구하러 다니지만 한바퀴 돌고나면 한없이 초라해진 나자신을 발견한다. 서울엔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은 왜 없는가.》

언론들도 각계층이 집값과 전세값폭등으로 하여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있다고 하면서 주택문제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글들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르고

《집값때문에 죽겠습니다.》, 《부자인 부모가 없으면 내 집 마련 못해.》, 《부동산난국으로 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것이 현실》이라고 저마다 울분을 터놓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남조선에서 더는 살수 없어 정든 제 고장을 버리고 해외로 빠져나가 떠돌아다니거나 더러운 사회에 침을 뱉고 아예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윤석열역도집권후 민생은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세계경제침체의 여파》니, 《피할수 없는 경기악화》니 하면서 재벌들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들을 완화해주자 《호기》를 만난 재벌들은 저마다 원자재와 소비품가격을 대폭 올려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률의 《3중고》의 시달림속에 가뜩이나 령락된 주민들의 생활형편은 더욱더 악화되고있다.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물가로 하여 주민들은 일상적인 식생활조건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2023년 1월의 물가만 보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의 소비품항목가운데서 85%에 달하는 389개 항목의 값이 전해 같은 시기보다 높아졌으며 그중 공업품은 6%, 식료품은 10.3%나 오르면서 전반적인 주민생활에 타격을 주었다.

특히 괴뢰당국이 국제적인 원자재가격상승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상태를 고려한다고

하면서 2022년에 비해 전기료금은 30%, 가스료금은 36%나 올린것으로 하여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였다. 한겨울에 난방비가 2배이상 뛰여올라 1월 한달동안 자기 집에서 얼어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하기에 주민들속에서는 《살기가 이렇게 힘든적은 없었다.》, 《이대로 어떻게 살겠는가.》, 《일생에 한번이라도 온전한 집에서 살고싶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눈을 씻고봐도 대책은 안보인다.》, 《밥상물가만이라도 바로잡아달라.》 등의 애원과 원망의 목소리가 련일 울려나왔다.

하지만 윤석열역도는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면서 력대 최고인 280만US$의 예산을 탕진하여 무려 550여대의 차량과 4만 1 000여명을 동원시킨 《초호화취임식》을 벌려놓았으며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이전놀음을 벌려놓는 등 빈궁과 절망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처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석열역도집권후 불과 반년사이에 은행리자률이 4차에 걸쳐 3%이상 올랐으며 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대부받은 가정들이 추가로 걸머지게 되는 리자부담은 약 230억US$에 달하였다.

윤석열역도의 《친기업정책》으로 중산층이 3.1%나 감소되고 12.9%는 최하층으로 굴러떨어졌다. 전체 가정세대의 70%이상이 로임으로 살아갈수 없어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며 한세대당 빚진 액수는 평균 6만 6 000여US$, 그 채무총액은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1조 5 500여억US$로서 총생산액에 비한 채무비률이 95%에 달하고

채무증가속도는 미국, 카나다, 일본 등에 비해 3～5배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있다.

특히 악성전염병사태기간 은행대출에 의존해온 《저소득계층》과 《령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대다수의 20～30대청년들은 채무지불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앞날에 대한 비관이 더욱 짙어가고있다.

한 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돈을 꾸었다가 제때에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지난 1년사이에 6만여명이나 늘었으며 그중 30대이하 청년은 4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5만여개의 기업이 파산되고 그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되였으며 비정규직로동자도 2021년에 비해 15만명이상 더 늘어났다.

제 집에서 먹고살 근심없이 사는것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초보적인 요구이다.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현상이 변할수 없는 《철칙》으로 자리잡은 남조선사회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무지스러운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무능력과 반인민적 악정으로 하여 앞으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은 더욱 심화되게 될것이다.

□ 미래가 없는 땅

남조선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배움에 대한 희망도 무참히 짓밟고있다.

황금만능의 남조선사회에서는 교육도 상품화되여 돈벌이의 수단으로 되고있으며 학생들과 부모들에게는 고통거리, 걱정거리로 되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 세대당 자녀 1명을 낳아 대학까지 공부시키는데 약 38만US$정도의 학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그밖에도 학용품과 교복, 가방을 마련하는데 드는 돈과 각종 명목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너무 많아 일반가정들이 허리를 펼수 없게 하고있다.

특히 사교육비부담이 너무 큰것으로 하여 가정은 가정대로 재정적으로 휘청거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신육체적으로 병들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학교들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그 질이 낮은것으로 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비난과 배척을 받고있으며 그것은 세계적인 통계자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몇해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읽기, 수학, 과학과목에서 사실상 문맹에 가까운 최하등급을 받은 학생비률이 14.8% 정도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대학교육경쟁력순위에서

63개 나라 및 지역중 53번째로 평가되였고 《2022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남조선대학들의 75%정도가 2021년에 비해 순위가 더 떨어졌으며 대학졸업생들의 실력평가순위에서도 절대다수가 100～200번째 순위이하에 머물러있다고 한다.

교육수준이 이렇다보니 좋은 대학에 가려면 학교교육외에 《학원》이라고 불리우는 사교육장들에 가서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것이 《원칙》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2022년 한해동안에 사교육비로 지출된 돈은 총 26조원으로서 전해에 비해 10.8%나 증가했다.

문제는 《학원비》로 불리우는 사교육비가 보통가정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것이다. 학생 한명이 외국어, 수학을 비롯해서 여러 과목의 사교육을 받는데 한달에 적어서 수십만원으로부터 수백만원까지의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적인 실례로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유치원에 자식 한명을 보내는데 매월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고 한다. 또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은행에서 높은 리자로 대출까지 받으며 사교육비를 충당하다가 파산당하는 실례도 많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단계에서의 교육비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남조선에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을 통털어 일컫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률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수십여개씩 존재하고있다.

《교육의 전문화, 다양화》라는 구실을 내걸고 설립된 이 학교들은 일반학교들의 몇배에 달하는 학비를 받으면서 교육분야에서의 빈부격차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가 이 학교들을 일반학교로 전환시키자고 강하게 요구하고있으나 윤석열역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교육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종 부정부패와 사기협잡을 낳는 온상으로 되고있다.

한 언론은 돈이 살판치는 교육실태에 대해 이렇게 개탄했다.

《교육부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새로운 정책을 족족 발표하지만 량극화는 더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부모의 재력이 대학을 좌우한다.>는 말은 더이상 새롭지 않다. 일찌감치 부모의 재력에 따라갈수 있는 학원이나 학교가 나뉘어져있다나니 가난한 아이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산다.》

대학들에서도 실태는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에게 해마다 《등록금》이라는 명칭으로 받는 학비는 그 액수가 높기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생들은 보통 천만원을 훌쩍 뛰여넘는 돈을 해마다 《등록금》으로 바쳐야 한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만한 돈을 마련한다는것이 보통가정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의 88%정도가 《등록금》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불리우는 방과후 로동을 하고있고 지어 녀학생들은 몸까지 팔고있다고 한다.

《장학재단》에서 빚을 내서 《등록금》을 바치고 졸업후 직업을 얻은 다음 리자를 얹어 갚아나가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라는것이 존재하고있다고는 하지만 그때문에 대학졸업생들이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장학재단》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그들의 대출잔액합계는 근 6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대학기간 생활비 등으로 대부받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까지 합치면 채무자수는 170여만명에 채무액은 10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하면서 언론들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아이들>이였던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거치면서 채무자로 바뀌였다. 대학졸업간판을 얻기 위해 채무자가 된 청년도, 채무자가 되기 싫어 간판을 포기한 청년도 현실앞에서 절망하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평하였다.

《등록금》은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처벌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있다.

몇해전 최고수재교육기관이라고 자처하는 《과학기술원》에서 4명의 전도유망한 대학생들이 《징벌적등록금》(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할수록 등록금을 많이 내는 제도)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들을 배워주던 선생까지 죄책감에 자살하는 비극도 벌어졌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권리중의 하나인 교육의 권리가 돈에 의해 짓밟히는 남조선사회의 진면모이다.

이렇듯 교육부문의 실태가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대신 반동적인 《교육개혁》놀음에만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오늘날 윤석열패당이 집요하게 밀어붙이고있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보수화, 시장화, 특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적패당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보수화를 노리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란데서 역적패당은 기존교재에 있던 《민주주의》, 《로동자》, 《성평등》과 같은 표현들을 삭제해버리고 《자유민주주의》이니, 《남침》이니 하는 보수적색채가 강한 용어들을 박아넣도록 하였다.

또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자체는 아예 없애버리였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보수리념과 반공화국적대의식을 강제로 불어넣고 민주화와 로동문제, 성평등문제를 비롯한 사회적문제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주입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역적패당의 《교육정책》은 다음으로 교육의 시장화를 노리고있다.

역적패당이 추진하려는 《기초학력보장계획》을 들여다보면 리명박역도가 교육분야에 《시장원리》를 받아들여 경쟁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떠들면서 도입하였다가 각계의 강한 규탄을 자아냈던 《일제고사》를 되살렸음을 알수 있다.

이것이 적용되게 되면 사교육이 계속 성행하고 학생

들이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우면서 각종 사회악이 더욱 만연될수밖에 없다.

역적패당의 《교육정책》은 또한 교육의 특권화를 불러오고있다.

신설되는 《고등 및 평생교육특별회계》에 따르면 다음해부터 보통교육기관들의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청들에 할당하던 예산중 많은 자금이 다른데 돌려지게 된다고 한다. 이는 필연코 보통교육부문을 축소약화시키고 교육분야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무지한 행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반동적인 《교육정책》에 몰입하는것은 학생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새세대들이 시장경제의 노예적운명과 반인민적악정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 보수세력의 집권안정을 유지하려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다.

결국 새세대들의 꿈과 미래는 어떻게 되든 저들의 정치적야욕추구를 위해 교육의 반동화를 미친듯이 추진하는 역적패당의 《교육개혁》놀음은 학생들을 육체만 살아숨쉬는 노예로 만들려는 야만적폭거이다.

가장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와 특권계층의 리익만을 실현하려는 반동통치하에서 청소년들의 배움의 희망은 이룰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 생명우에 돈을 놓는 세상

병이 나면 치료를 받는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병이 나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목숨을 잃고있다.

최근시기 전염병들과 생활환경의 악화로 하여 만연하는 각종 질병들 그리고 사고와 자연재해 등으로 하여 환자들이 수많이 발생하고있지만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다.

오직 돈을 벌수 있는 《치료》만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는 관심이 없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병원들이다.

2023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로인이 중환자침대가 없다는 리유 등으로 무려 11개에 달하는 병원에서 문전거절을 당하고 100㎞나 떨어진 다른 지역의 병원에 가던중 구급차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같은 달에 서울에서는 고열이 나는 5살 난 어린이가 4곳의 병원에서 병실이나 전문의사가 없다는 리유로 진단과 치료를 거부당해 하루만에 숨지였으며 3월에는 대구에서 사고를 당한 10대소년이 2시간이 넘도록 여러 병원들을 찾아다니다가 구급차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처럼 구급차로 환자를 싣고가서도 병원에서 거부당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해마다 수많이 발생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남조선보건부문의 현 실태이다. 구급환자를 받아봤자 별로 리익이 나지 않을것이 뻔하니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에 병원이 적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중에는 돈을 쉽게 많이 벌수 있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전문병원들이 지나치게 많다.

괴뢰들의 《의료법》에 의하면 응급치료과병원인 경우 구급소생설비 등 의료기구들을 갖추어야 하지만 특정한 병원을 제외한 그밖의 다른 전문병원들에는 꼭 갖추고있어야 할 의료설비명세가 없다고 한다.

결국 피부과병원이나 성형외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은 일반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가 없이 피부미용설비나 물리치료기구만 갖추어놓고있으며 병원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가장 초보적인 의료기구인 청진기조차 없다고 한다.

이런 병원 아닌 병원들이 당국의 비호밑에 버젓이 《병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에게 리익이 되는 돈벌이만 하고있다.

이러한 민간의료기관들이 의료부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자각이나 의무감 같은것은 전혀 없고 오직 리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치료가 옳바로 진행될수 있겠는가.

2020년 괴뢰국립중앙의료원이 밝힌데 의하면 전체

의료기관 4 000여개가운데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은 5%정도인 200여개에 불과하였으며 환자침대수도 전체 침대수의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의료민영화》의 추진으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립병원들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러한 사립병원들은 악성전염병환자치료에도 나서지 않고있다.

2020년 《COVID－19》의 1차류행시기 대구시와 경상북도에는 4만여개의 병원침대가 있었으나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침대수는 1 000여개밖에 되지 않아 이 지역의 환자들을 다른 도, 시의 의료기관들에 이송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공공병원에 침대가 부족한것으로 하여 거기서 치료받던 다른 환자들이 쫓겨나는 일도 벌어졌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아니라 오직 리윤만을 추구하는 보건계의 진모습을 드러내보이는 생동한 실례라고 말할수 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소위 《인기과》로 불리우는 자리에만 몰리고 돈을 벌기 힘든 전공과들에는 가려고 하지 않아 치료를 받으면 살수 있는 사람들도 생명을 잃고있다.

2022년 남조선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그 병원의 간호원이 현장에서 뇌출혈을 하였지만 당시 병원에 뇌수술전문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일은 힘들고 수입은 적다나니 대학때부터 누구

도 뇌수술전문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 해당 병원에는 뇌수술전문의사가 2명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에 있는 10여만명의 의사중 돈을 쉽게 버는 미용성형과에서 일하는 의사는 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와는 반대로 고강도의 어렵고 복잡한 수술을 하며 수입이 적은 흉부외과전문의사인 경우 60% 정도가 50살이상인 반면에 보충되는 젊은 의사는 한해에 수십명밖에 되지 않아 경상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북도에는 한명의 흉부외과의사도 없어 이 전공의사의 《씨》가 말라가고있다고 한다.

2023년 3월 의사단체인 《소아청소년과리사회》 회장은 《소아청소년과(소청과)간판을 다 내리겠다.》고 하면서 《소청과페과선언》을 하였다. 그는 출생률저하로 인한 어린이감소와 낮은 진료비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소청과》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반병원형태로 개원하겠다는것이 《소청과》의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출생률이 낮아진탓에 소아환자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감소로 의학대학들에서 이 학과가 《제1기피학과》로 된지 오래다고 한다. 하여 2023년에 이르러 《소아청소년과》들에는 필요한 의사정원의 15%밖에 지원하지 않았으며 2023년 5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58개에 달하는 시, 군, 구의 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아예 없고 17개의 시, 군, 구에는 한개뿐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

거나 서울이나 다른 큰 도시로 가서도 몇시간씩 기다려서야 진료를 받을수 있어 발을 동동 구르고있는 형편이다.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인기가 떨어진 산부인과의사도 급격히 줄어들고있어 녀성들이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고있다.

언론들은 한심한 보건실태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썼다.

《근본책임은 당국에 있다. 병원설립과 의료인양성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의료를 시장에 맡겨버린탓이다. 돈벌이를 장려하고 <신시장>을 창출해왔다. 이런 시장에서 의료기관은 몸집을 불려도 인건비는 최소화하고 돈되는 환자중심으로 진료하는 <단물빨기>를 한다. 지역공공병원에 의사가 가지 않는것도, 인구가 적은 지방에 병원이 생기지 않는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의학대학학생수를 늘이고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가 그 반대의 길만 걷는한 의료현장붕괴는 가속화될수밖에 없다.》

간호원의 부족도 환자치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있다.

남조선에서 간호원수는 인구 1 000명당 평균 4명정도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들의 평균인 8명에 비해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간호원들이 높은 로동강도와 렬악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할것을 요구하고있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이를 거부하고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

자들에게 가해지고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약품원료를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고있어 환자들에 대한 치료약품보장도 제대로 할수 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다른 나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지 못하면 제약회사들은 의약품생산에서 지장을 받게 되며 각종 질병에 제대로 대처해나갈수 없게 된다.

실제로 악성전염병류행초기 다른 나라들의 의약품원료수출제한조치로 하여 의약품생산은 크게 지장을 받았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미명하에 달마다 거두어들이는 《건강보험료》부담도 근로자들, 평민들의 등을 무겁게 짓누르고있다.

아무런 수입도 없는 로인들과 부모잃고 자기들끼리 살고있는 아이들에게까지 《건강보험료고지서》가 월마다 꼬박꼬박 날아오고 미처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와 연체료가 쌓이고쌓여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건강보험료》를 제때에 물지 못하는 저소득세대수는 근 100만세대에 이르고 그 액수는 1조원을 훨씬 넘는다.

언론들이 《건강보험료체납자의 90%이상은 생계형체납자들이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빚독촉만 하고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더 내야 하는 돈때문에 체납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다. 이들을 위해 제도를 개

선하여 많은 생계형체납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소귀에 경읽기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썩어빠진 황금만능의 사회적풍조는 보건부문이라고 례외로 되지 않는다.

남조선의 병원들에서는 의학륜리란 말조차 없다.

의사들과 환자들사이의 도덕적행동규범을 밝힌 의학륜리는 의료행위가 시작된 고대시기부터 중요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여왔다.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의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환자를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학분야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륜리로 여겨왔다. 고대그리스시기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어느한 글에서 의술을 악용하거나 의사의 직업을 람용하지 말고 이리저리한 방법으로 환자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치료하기 전에 치료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며 환자들로 하여금 뢰물을 섬기도록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사회에서는 돈벌이에 피눈이 된 의사들의 사기와 협잡행위들이 보편화되고있다.

몇해전 대구의 한 병원에서는 5살 난 어린이가 사망한적이 있다. 어린이의 부모들은 이 병원 원장이라는 자가 저들이 말기암환자도 완치시킬수 있다고 흰소리를 치는데 기대를 걸고 가산까지 팔아서 엄청난 치료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현대적인 의료기술이 아니라 소금물관장과 단식을 비롯한 비과학적이며 비인간

적인 수법을 적용하여 어린이가 끝내 고통속에 숨지게 하였다.

이 병원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환자가 그 어린이 밖에도 여러명이라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갈수록 성행하고있는 《유령수술》도 문제이다.

일명 《대리수술》이라고도 불리우는 《유령수술》은 해당 전공의사가 아닌 다른 전공부문의 의사가 집도하는 의료사기행위를 가리켜 생겨난 말이다.

많은 병원들에서 유명한 의사를 내세워 광고하는 형식으로 환자를 받아들이고는 실지 수술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고있다.

하여 교통사고, 화재사고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의 성형수술을 산부인과나 이비인후과 지어는 치과의사들이 집도하는것이 보통이다. 더우기 경악을 금할수 없는것은 애당초 의사자격조차 없는 돌팔이의사들까지 수술칼을 휘둘러대며 환자의 생명을 롱락하고있는것이다.

그러한 비인간적행위의 밑바탕에는 역시 돈이 자리잡고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을 해야 할 진짜의사보다 훨씬 적은 돈을 지불하는 《유령의사》를 내세워 수술을 하면 환자에게서 받은 수술비의 많은 몫을 저들의 수익으로 남길수 있다는 타산으로 이러한 비인간적행위를 조장하고있다.

적지 않은 병원들이 최근 몇해사이에 의료협잡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해친것으로 하여 《살인공

장》의 오명을 쓰고있지만 아무런 량심상가책도 느끼지 않고있다.

이 흰옷입은 범죄자들은 의료협잡행위뿐 아니라 《법》적인 비호밑에 환자들에 대한 각종 폭력행위도 일삼고있다.

몇해전 남강원도 속초시의 한 병원에서는 정신병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환자를 18시간동안 침대에 묶어놓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병원의 의사들은 일상적으로 걸핏하면 트집을 걸어 환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군 하였다고 한다. 지난 몇해동안 의사들속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감행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폭력범죄행위는 수천여건에 달하였다.

생명우에 돈을 놓는 사회, 초보적인 의학륜리도 없는 남조선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자살률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이것이 남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중의 하나이다.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권리,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인간의 생명 그자체가 사회제도로부터는 물론 인간자신에게서까지 너무도 참혹하고 랭혹하게 부정당하고있다.

2022년에 남조선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수는 1만 3000여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자살률로 따지면 10만명당 20여명으로서 20여년째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통계분석결과를 보면 65살－70살이상 로인자살률도 세계 제1위로서 2위보다도 2배이상이나 높으며 현역군인 자살자수와 《자살위협후보자 및 자살충동체험자》비률도 매우 높다. 또한 해마다 평균 400여명이 넘는 로동자들이 장시간의 로동에 치이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어느한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을 시도하다가 병원구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은 년간 수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청소년들속에서 자살률이 급증하고있는것이다.

최근 조사자료들에 의하면 10대－30대의 자살률은 시기별 총자살자수의 21～23%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이 기록은 갱신되고있다. 전체 사망자중 1위가 바로 자살이며 특히 10대－30대의 자살이 1위로 꼽히고있는 사실은 주민들속에서 앞날에 대한 비관이 더욱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병이 나도 치료받을수 없어 자살하고 빚더미에 올라서서 더는 살수 없어 가족이 함께 자살하고 사기범죄를 당하여 전 재산을 날려보낸 울분에 자살하고 괴뢰군내에서 비인간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등 자살의 원인도 천태만상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자녀살해후 자살》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충청북도 옥천에서 빚단련에 시달리던 40대가장이 안해와 세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서울 서초동에서 주식투자에 실패하고 우울증을 앓던 40대가장이 안해와 두 딸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으려다가 경찰에 잡힌 사건, 경기도 포천에서 억대의 빚을 진 부부가 2명의 딸과 함께 《번개탄》이라고 부르는 착화탄을 차안에서 피워 자살하려다가 실패하자 딸들을 목졸라죽이고 자살하려다가 미수로 그친 사건과 같은 자살사건들이 꼬리를 물고일어나고있다.

2022년 6월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부가 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바다에 뛰여들어 자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네트에는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다. 가려면 혼자 가든지 하지, 애가 무슨 죄냐?》, 《제발 아이들을 가만둬라.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글들이 대대적으로 올랐다.

심각한 사회적골치거리인 각종 류형의 자살문제를 놓고 각계에서는 《정신적불안》, 《악성전염병, 경제생활의 어려움과 비관의 격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률증가》, 《육체적질병》, 《가정문제》, 《우울증》 등 그 원인에 대해 각이한 견해들을 내놓고있다. 이로부터 《심리상담 및 치료》, 《항우울증치료》와 같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자살방지대책》들이 취해지고있지만 자살률은 낮아지지 않고있다.

그러면 자살률이 증가하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자살은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외적요인에 의한

정신육체적압박과 부정적영향으로 인해 《생명유지에 대한 요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긴장해진 최악의 인간심리상태》에서 벌어지는 비극적결말이다. 따라서 인간을 이러한 정신심리적극단에로 몰아가는 사회현실이야말로 자살원인중의 원인인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자살률증대의 근본원인은 철저히 온갖 인권유린, 인권침해행위들을 낳고있는 사회정치적, 경제적바탕에 있으며 이를 묵인, 방관시하며 더욱더 조장시키는 반인민적악정에 있다.

현실적으로 언론, 전문가들은 《자살은 괴이한 정치구조속에 이루어지는 이 사회공동체내에서 비인간적상호작용으로 빚어진 비극적결과》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자살률은 더이상 개인문제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사회정치적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최근에도 한 학자는 《목숨걸고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준다는 믿음이 없는 사회,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없는 사회에서 각자도생이 창궐하는건 당연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관대함이 사라지고 힘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 약육강식, 승자독식구조의 정치현실, 사회현실속에서 인권, 생명권은 사라져가고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바로 세계최고의 자살률이다.》라고 까밝히면서 반인민적악정이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에 대하여 개탄하였다.

독단과 오만, 무지와 무능으로 일관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정책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경제위

기, 민생위기를 비롯한 사회적위기가 심화되고 로동권,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있다.

절대빈곤층은 200만여명이상으로 늘어나고 자살률, 출생률, 사고발생률에서 세계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있는 현실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 크게 터져나오는것은 《남조선이 통채로 인권사각지대로 화하고있다.》, 《불행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는 개탄뿐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패당은 자살의 원인을 《개인문제》로 밀어버리면서 생뚱같은 대책들만 내놓고있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있다.

2023년 4월 괴뢰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그 무슨 《자살예방기본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는데 그 《방도》라는것이 인터네트싸이트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을 실황중계하는것과 같은 글과 사진, 동영상 같은것을 접속할수 없게 하겠다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번개탄》이라고 불리우는 착화탄에 의한 가스중독으로 사망하는 자살자가 전체 자살자의 15%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번개탄》생산을 금지하여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해괴한 대책까지 내놓아 만사람의 조소를 받았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자살률 세계 1위로 국제적인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는 저들의 비루한 몰골을 가리우고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를 눅잦혀보려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한 언론은 역적패당의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대해 《자살을 막겠다는 말은 앞서는데 높은 자살률의 근본

원인인 사회구조적모순은 나 몰라라 하고있다. 세상이 그대로인데 자살이 줄어들가. 사소한 문제도 죽음의 방아쇠가 될수 있지만 어떤 자살도 순전히 개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다. 사회구조적모순은 심화시키면서 자살률걱정이나 하는 위정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살인자가 아닐가.》 하고 비난하였다.

바로 그렇다. 인민들을 자살에로 내모는 장본인, 주범이 누구인지는 불보듯 명백하다. 집권후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는 《룡와대》와 관저이전을 비롯한 저들의 향리향락에 진탕치듯 써버리면서 경제와 민생은 천길나락에로 떨어뜨려 사람들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각종범죄와 사회악이 판치는 구조적모순을 극도에 이르게 한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다.

사람들을 극단에로 몰아간 주범이 도리여 《자살예방》에 대해 떠들고있으니 실로 《악어의 눈물》, 《병주고 약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역적패당이 심각한 자살문제해결을 위해 애써 노력한다는 냄새를 피우려고 그 무슨 《복지시설확대》니, 《추가지출》이니, 《상담능력확보》니, 《약자보호》니 하는따위의 허황한 말장난만 늘어놓기때문에 《속병에 고약》, 《하나마나한 땜질처방》이라는 야유와 조소가 각계에서 터져나오고있다.

사는것이 죽는것보다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인간은 자살이라는 막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사회악의 대표적실례, 사회의 고질적병폐인 자살은 인간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

대를 전혀 가질수 없는 절망의 최후몸부림이며 저주로운 사회에 대한 마지막항거와 분노의 폭발이다.

이런 인권페허지대, 인권동토대가 사멸하는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반인민적정책만을 강행하는 윤석열역도와 같은 통치배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는한 남조선은 인권페허지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3. 범죄와 녀성천시, 패륜패덕의 란무장

□ 각종 범죄의 활무대

세계최악의 인권동토대인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범죄의 희생물이 되여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묻지마 살인》, 《련쇄살인》 등 듣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살인사건들이 꼬리를 물고일어나고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마약과 같은 범죄가 시퍼런 대낮에도 판을 치는것이 바로 오늘날 남조선의 현실이다.

8개월간 20여명을 살해하여 《희대의 련쇄살인마》로 불리운 한 범죄자의 경우를 놓고보자.

불우한 가정환경탓에 소년시기부터 감옥에 들락거리던 그는 어느날 절도죄로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소로 갔다. 차례를 기다리던 그는 자기보다 죄과가 더 큰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것을 보고 자기도 풀려날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돈도 없고 《빽》도 없는 그에게는 실형이 언도되였고 2년나마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와 같은 돈없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짓밟는 사회와 돈있는자들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갈던 그는 석방후 부유층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복수에 나서게 된것이다.

이것이 비단 그의 경우뿐이 아니다.

14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다른 한 범죄자도 남조선사회가 키워낸 악마였다.

한 언론은 그 범죄자의 살인동기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힘겹게 살았다. 가난과 가정폭력, 이어지는 성폭행 그리고 따돌림은 그를 반사회적성향으로 만들었다. 그는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며 점점 괴물로 변해갔다.》

이밖에도 남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련쇄살인마》들을 비롯해서 썩고 병든 사회가 만들어낸 극악한 범죄자들이 택한 길은 오직 사회에 대한 복수와 《살인의 쾌락》, 거기에서 얻는 만족감이였다. 그 결과 로인과 부녀자, 청소년, 장애자들을 비롯하여 말그대로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희생물이 되였다.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순간에 앗아가는 살인사건들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2023년 3월에 서울에서 여러명의 범죄자들이 야합하여 40대녀성을 랍치살해하고 시신을 다른 지방에 내다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낸것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벌어지는 살인사건들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인권동토대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정신륜리도덕의 타락도 남조선사회를 좀먹는 악성종양이다. 이러한 악성종양이 시시각각 퍼지고있는 곳에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패륜범죄들도 그치지 않고 벌어지고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상처를 입히다가 끝내 살해한것도 부족하여 재혼한 남편과 친정어머니를 살해하고 친오빠와 동생에게 중상을 입히였으며 식모의 집에까지 불을 지른 패륜범죄, 아들을 만나러 왔던 리혼한 전 남편에게 마취약을 먹인 다음 칼로 찔러 살해한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형제간에도 피비린내나는 살륙이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40대의 남매가 70대의 친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아들이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지 않아 굶겨죽인 사건, 가정주부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두명의 남편들과 시어머니를 독살한 사건 등 차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패륜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아이를 낳아 비밀리에 팔고사는 범죄, 어린이를 랍치해 몸값을 요구하다가 살해하는 범죄, 친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범죄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도 날이 갈수록 성행하고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살아나갈수 있는 남조선사회는 인간을 어릴 때부터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에 물젖은 정신적불구자로 키워내고있다.

2023년 3월 검사출신으로 경찰고위직인 《수사본부장》에 임명되였던자가 지난날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사건을 무마하려 했던것이 들장나 하루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학교폭력사건이 또다시 사회적여론과 언론의 도마우에 올랐다.

함께 공부하는 학생을 향해 끔찍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해 피해학생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학교폭력은 남조선의 《토질병》, 《풍토병》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퇴한 《수사본부장》의 아들사건만 놓고보아도 이 소년범죄자는 검사인 애비를 등대고 한 기숙사호실에서 생활하는 피해학생에게 매일 언어적, 물리적폭력을 행사했고 애비는 애비대로 학교와 재판부를 대상으로 자기 아들의 범죄를 무마시켜보려고 별의별짓을 다했다.

이러한 속에 피해학생은 극심한 정신적충격으로 자살까지 시도하였고 오래동안 그 후유증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있는 반면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머리를 쳐들고 살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가난한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수 없는 주홍글씨를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돈있고 권세있는 집 자식인 가해자들은 <부모덕>을 기반으로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현실속에서 과연 사회정의가 존재할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였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사건들은 그 잔인성과 야수성에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매일 아침 등교해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죽이겠다는 협박을 가하며 돈지갑을 털어내고 온갖 구실을 붙여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구타하고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몰아주고 따돌리고 사회교제망에서 모욕하고 사생활에 대해 헐뜯다 못해 허위사실을 류포하는 등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오죽하면 피해학생들이 《(수면제를 파는)약국은

9시에 문을 열고 한강은 걸어서 20분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시시각각 떠올리고있다고 했겠는가.

실지 현실속에서 학생범죄자들의 폭력을 방지해야 할 학교측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있으며 그속에서 가해자는 죄를 어물쩍 넘기고 피해자는 다른 학교로 전학가야만 폭력을 피할수 있다.

하기에 학교폭력사건의 피해자가족들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서 인권이나 미래에 대해 기약할수 없다.》고 울분을 터놓고있으며 교육전문가들도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이라는 가치의 용인아래 아이들에게 생존경쟁을 조장하고 약자가 도태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있다.》고 비판하고있다.

이러한 사회구조하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고 파괴하는 각종 범죄가 어찌 기승을 부리지 않겠는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마약범죄와 사기협잡, 인신매매, 소년범죄 등 인간의 정신을 좀먹고 정신육체적불구자로 만들며 피해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국에로 몰아넣는 범죄들도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특히 범람하는 마약범죄가 사회의 골치거리로 되고 있다.

마약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좀먹고 온갖 범죄를 조장시켜 사회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악성종양과 같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10대의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생, 가정주부, 예술인, 사무원 등 남녀로소 가릴것없이 마약을 사용하여 정신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마약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마약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괴뢰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마약밀수단속량은 2017년에 69㎏으로부터 2021년에 1 272㎏으로 18배이상 급증하였으며 마약범죄자 역시 그 기간 7배나 증가했다. 경찰에 적발되는 건수가 전체 마약범죄의 5%미만이라는 사실을 놓고볼 때 실지 마약범죄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023년 1월과 2월에 검거된 마약범죄자만 해도 2 600여명으로서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30%이상 늘어났다. 4월에는 여러명의 범죄자들이 서울 강남구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음료수》라고 속여 마약이 섞인 음료를 먹이고는 그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마약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사람들을 정신적, 육체적불구자로 만들어 그들의 인격과 인생을 송두리채 짓밟는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는것과 관련하여 윤석열패당이 《마약과의 전쟁》, 《검찰의 마약수사전담부서 부활》과 같은 《대책》들을 떠들고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서는 금융사기범죄도 성행하면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있다.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협잡범죄의 희생물로 되여 재산을 통채로 날리고 인생이 파탄되

고있다.

2022년에 부동산범죄자들이 벌린 《전세사기》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평생 피땀으로 번 돈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동산범죄자들은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밑천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아 다른 집을 사서는 또 전세를 주는 방법을 무려 수백, 수천번이나 반복하여 수백, 수천채에 달하는 집을 소유하였다. 결국 그 집들에 전세로 든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갑자기 죽거나 도주하는 경우, 집값이 폭락하여 전세값보다 낮아지는 일명 《깡통전세》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집주인인 범죄자의 재산환수를 위해 전세로 들었던 집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빚까지 내여가면서 마련한 돈을 찾을 길이 없게 된다.

범죄자들은 주로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청년들을 상대로 《정부》가 보증하니 집이 사기당할 일이 없다고 속이면서 집값보다 더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계약만료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범죄를 감행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 괴뢰경찰이 조직적인 《전세사기》범죄행위에 가담한자들을 수천명이나 검거하고 수백명을 구속한다 어쩐다 하고 분주탕을 피워댔지만 이미 행차뒤 나발이였고 엎지른 물이였다. 수천억원규모의 이 《전세사기》범죄에 의해 수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로, 은행의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로 굴러떨어졌으며 자살과 가정파탄이라는 비극적운명에 처하였다.

2023년 2월과 4월에는 인천에서, 5월에는 서울에서 범죄자들에게 사기당한 여러명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련이어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면서 자살하여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되였다. 언론들이 평한것처럼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만 제대로 세웠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 벌어진것이다.

한 야당인사가 《이번 <전세사기>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정책>, 무분별한 <전세대출확대정책>으로 인한 집값, 전세값의 폭등, 묻지마 보증방치, 등록임대주택관리 및 보증보험관리부실 등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성토한것은 이 범죄발생의 근본원인이 현 괴뢰당국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책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그러나 윤석열역도는 뻔뻔스럽게도 《집값급등과 시장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줴치면서 피해자들을 죽음에로까지 몰아넣은 저들의 죄행을 발뺌해보려고 역스럽게 놀아대기까지 했다.

남조선에서는 소년범죄도 급증하고있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이 황금만능의 사상에 물젖어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의 현실이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난과 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집을 뛰쳐나온 후 절도, 사기, 강도, 폭행 등 범죄의 길에 뛰여들어 자기자신과 피해자들의 인생을 망치고있다.

언론보도들에 의하면 10대초반의 나이인것으로 하

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여있는 어린이들속에서 범죄행위가 계속 증가하는 속에 2017년에 6 000여명에 달하던 소년범죄자수는 2021년에 이르러서는 8 00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날로 우심해지고 잔인해지는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지만 괴뢰당국이 내놓은 《처방》이라는것은 만 14살까지로 되여있는 처벌면제나이를 한두살 더 낮추어 형사적책임을 지게 하겠다는것뿐이다.

《위 아픈데 빨간약 바르는 식》의 이러한 대책이 급증하는 소년범죄를 막을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자명하다. 사회제도자체가 청소년들을 범죄의 길로 내모는 사회적, 가정적환경을 조성해놓고 또 어릴 때부터 약육강식과 황금만능의 썩어빠진 사상을 주입시키면서 그 결과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의 수위나 높이겠다는 것은 민심과 여론에 대한 우롱이다.

사람들이 강도, 폭력, 마약, 사기협잡과 같은 각종 범죄의 희생물이 되고있는 남조선이야말로 사람 못살 인권불모지, 인권동토대이다.

□ 녀성들의 생지옥

남조선은 녀성들이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 가정폭력과 학대, 온갖 범죄의 희생물로 되여 불행과 고통속에 시들어가고있는 녀성들의 생지옥이다.

남조선에서의 남성과 녀성의 임금차별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다.

몇해전부터 3월 8일이 오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는 녀성들의 《15시 조기퇴근시위》가 벌어지고있다. 성별임금격차를 8시간 로동으로 환산해보면 녀성은 15시부터 무보수로동을 하는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이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차별적인 임금실태를 공개하고 격차를 해소하라.》고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남성과 녀성의 임금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녀성이라고 해서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현실은 녀성차별이 만연되는 남조선사회의 실상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결혼과 임신, 육아 등으로 하여 직업을 잃은 녀성문제도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괴뢰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녀성들이 수백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가하려고 해도 직업을 얻기 위한 문턱은 높고 문도 좁아 고등교육을 받은 녀성도 할수없이 저임금일자리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결과적으로 녀성들이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결혼과 해산

을 기피하고있고 그것은 인구감소와 로동력부족을 낳는 악순환을 초래하고있다.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해마다 수많은 녀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여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로 되고있다. 가정폭력을 피해 탈가한 녀성들은 또 다른 각종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녀성학대와 관련하여 《가정폭력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하지만 가정폭력은 그치지 않고 해마다 수만건씩 발생하고있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재판소에 제기된 가정폭력사건의 근 절반가량이 《법》이 개입할수 없는 《불처분사건》으로 처리되고있는것이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학대와 폭력을 더는 견디다 못해 가해자인 남편과 아버지를 안해와 자식들이 살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사회에 만연한 녀성천시, 녀성학대분위기를 더 조장하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역도의 녀성천시, 녀성차별정책에 의해 수많은 녀성들이 생존을 위해 매춘의 시궁창으로 굴러떨어지고있으며 범죄의 희생물이 되여 생명마저 잃고있다.

이미전부터 남조선은 가난하고 갈 곳이 없는 수많은 녀성들이 매춘의 나락에 굴러떨어져 《집창촌》, 《홍등가》로 불리우는 유곽들에서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여왔다.

오늘날에도 남조선녀성들의 처지는 전혀 다를바없다.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합법》적인 유곽들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룸살롱》, 《룸카페》, 《단란주점》, 《안마소》 등 간판을 바꾸어단 유곽들에서 성매매가 뻐젓이 진행되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지어 중고등학교나이의 10대소녀들이 성매매와 매춘을 강요당하고 성범죄의 희생물이 되는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몇해전 남조선에서는 10대소녀들과 20대처녀들을 협박하여 일명 《성착취동영상》이라고 불리우는 성록화물을 제작한 다음 사회교제망을 통해 류포시킨 범죄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경찰이 장악한 피해자 100여명중 20여명이 미성년이였다고 한다. 이러한 인터네트싸이트는 수없이 많다. 인터네트에 접속하여 《성착취동영상》을 고정적으로 열람한 계정만 해도 1만 5천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몇몇 범죄자나 잡는다고 해서 사회에 만연한 녀성들에 대한 성적착취, 성범죄행위가 근절될수 없다는데 있다. 그것은 사회제도자체가 녀성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조장하고있기때문이다.

녀성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는 직장과 사무실들에서도 감행되고있다.

《상사》라고 불리우는 직장내 상급들에 의해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들이 그칠새없이 일어나는 남조선에서는 녀성검사가 직장에서 성폭행당하고 현직 도지사나 시장이 자기를 보좌하는 녀성서기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감행하는 일도 례사롭게 벌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녀성들이 《나도 당했다.》는 의미인 《미투운동》에 저저마다 떨쳐나서 자신이 당한 성범죄 피해를 공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것을 요구하고있겠는가.

한 녀성활동가는 자기가 쓴 책에서 《성폭력증거가 없으면 피해자는 <명확한 가해자>가 되고 성폭력증거가 명백하면 <합의도 해주지 않는 야박한 가해자>가 된다. 가해자가 자살하면 피해자는 <살인녀>가 되고 가해자가 리혼하면 <가정파탄범>이 되고 가해자가 파면되면 <잘나가는 직장상사 목자른 녀자>가 된다.》고 녀성들의 처지를 개탄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장자연자살사건》이나 《김학의사건》처럼 녀성들을 상품처럼 권력에 섬겨바치는 《성접대》, 《성상납》 같은 범죄도 《관례》로 되고있다.

2022년 9월 서울의 지하철도 신당역에서는 녀성직원이 같은 직장의 남성직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제를 거부하는 녀성을 지꿎게 따라다니다가 끝내는 살해하고야만 이 사건을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에서는 만나기를 거부하는 녀성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범죄, 교제하는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폭력범죄, 《교제살인》, 생면부지의 녀성을 대상으로 한 《녀성혐오살인》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고 그러한 속에 녀성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속에 보내고있다.

2022년 12월 《녀성가족부》는 《녀성폭력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평생 정

신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녀성들의 비률은 근 40%에 달하였다. 또 2021년 한해동안에 경찰이 립건한 성폭력 범죄건수는 근 4만건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런 《범죄천국》에서 녀성들의 인권이 지켜지리라고 기대하는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여나기를 바라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린 딸을 가진 부모들도 《바늘방석》에 앉아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몇해전 어느날 새벽 어느한 감옥앞은 항의하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날 12년전에 8살 난 초등학교 녀학생을 야수적으로 성폭행한 흉악한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기때문이였다. 특히 이 범죄자가 출소하여 생활하게 될 경기도 안산시의 딸가진 부모들은 범죄자의 출소를 극력 반대하면서 청와대홈페지에 그자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했다.

괴뢰당국이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천여건씩 발생하고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있다. 또 감옥에서 출소한 성범죄자가 거주하게 된 지역에서는 수많은 딸가진 부모들과 주민들이 제발 다른 곳에 가서 살라고 시위까지 벌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이 바로 녀성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수십년간 매춘의 시궁창에 굴러떨어졌던 한 녀성은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보며 쓴 자서전 《길 하나 건느면 벼랑끝》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맞아도 내 잘못, 강간당해도 내 잘못, 남자에

게 버려져도 내 잘못, 성매매를 해도 내 잘못이라며 늘 <잘못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내가 가난하고 못배웠다고 성매매로 류입되여야 했을가? 내가 강간당하고 버림받았다고 성매매를 해야 했을가? 나는 왜 성매매를 했을가? 내가 잘못한것일가?》

남조선사회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 물음에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녀성들을 학대하고 천시하는것이 사회적풍조로 굳어지고 녀성들을 돈의 노예, 권력의 노리개로 내모는 남조선사회가 당신에게 강요한 불행이고 고통이다.》

□ 학대받는 사회적약자들

2022년 8월 남조선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사건》을 《당국의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형제복지원사건》이란 박인근이라는자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부랑인보호수용시설》이라는 명목아래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아이로부터 로인, 장애자에 이르기까지 연 3만 수천명의 사람들을 가두어놓고 마소처럼 부리고 마구 폭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불구자로 만들고 그중 600여명을 살해한 희대의 인권침해사건이였다.

사건이 터진 때로부터 35년만에 진상규명이 되였다

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자가족과 생존자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고있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간 거기에 감금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너무도 끔찍하여 《형제복지원》을 제2차 세계대전시기 나치스도이췰란드가 설치하였던 수용소에 비유하였다.

생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박인근을 비롯한 범죄자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경찰과 함께 《부랑자단속》이라는 구실밑에 아무 리유없이 길가던 사람들을 끌어갔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을 많이 랍치해갔다.

이렇게 끌려간 아이들은 온갖 학대와 천대를 받으며 맞아죽고 병에 걸려죽고 불구자로 되는 등 인권을 깡그리 짓밟혔다.

후에 밝혀진바이지만 1981년에 전두환역도는 《서울시내에 걸인이 많다.》는 보고를 받고 《올림픽개최이전에 서울거리에 걸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역도의 지시대로 경찰과 《형제복지원》깡패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끌어갔다. 이것은 《형제복지원사건》이 당국이 저지른 인권침해행위라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론을 뒤받침하는 뚜렷한 증거이다.

어린이들을 비롯한 사회적약자들의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행위는 오늘도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

2021년초 남조선사회는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에게서 학대받다가 사망한 일명 《정인이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6개월이 넘도록 매일같이 매를 맞아 피멍이 들고 먹지 못해 영양

실조에 허덕이다가 끝내는 심각한 신체손상을 입고 죽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사건에는 말도 제대로 할수 없는 1살 남짓한 어린이를 그처럼 야만적으로 학대한 양부모라는 범죄자들의 죄과와 함께 아동보호의 책임을 진 기관이나 경찰이 강건너 불보듯한데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주변사람들에 의해 정인이가 학대받는 사실이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도 신고되고 병원에서 피멍과 골절등이 확인까지 되였지만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은 《무혐의》, 《아동학대사실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어린 정인이를 끝내 죽음에로 몰아넣었다.

인간의 사랑과 정가운데서 가장 뜨겁고 진실하며 열렬하고 사심없는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정이다. 그러나 인간이기를, 부모이기를 그만둔 흉악한 폭군과 살인마들이 살판치는 사회, 자식을 둔 부모를 정신도덕적체모와 도의마저 줴버린 악마, 악한으로 만드는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행위, 자식들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는 장장 수십년간 남조선사회에 만연된 뿌리깊은 악행중의 하나이다.

최근시기에도 9살짜리 남자어린이가 이붓어머니의 학대로 려행용가방안에서 숨지고 령하 15℃의 날씨에 3살짜리 어린이가 내의바람으로 거리를 헤매는가 하면 출생한지 41일밖에 안된 젖먹이어린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여 친어머니가 살해한 사건,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부모가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하여

숨지게 한 사건 등 듣기에도 끔찍한 아동학대사건들이 꼬리를 물고일어나고있다.

2022년에 아동학대피해자수는 전해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아동학대협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수천명에 달하였다. 특히 부모가 범인인 아동학대사건비률은 계속 늘어나 가해자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률은 90%를 가까이하고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신고되지 않고있는 아동학대범죄는 신고된것보다 훨씬 더 많으며 대략 추산해보아도 신고건수의 1.3~1.5배는 될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그나마 신고된 사건중 범인을 구류한 사건은 39%, 피해자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진것은 14%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어린이의 60~70%이상이 10살전후의 어린이들이며 폭력적인 학대로 인한 어린이사망자수는 2017년의 38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매년 40~50명계선에까지 이르고있다.

그 범행과정들을 보면 어린이에 대한 구타는 더 말할것도 없고 목욕실과 창고, 세탁기, 옷장 등에 장시간가두어놓기, 알몸상태로 밖에 내쫓기, 강제로 급식시키기, 쇠사슬이나 끈으로 목을 매여두기, 강한 수면제로 잠재우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별의별 형태의 학대행위들이 다 저질러지고있다. 또한 가정에서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교들에서도 어린이학대사건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있으며 어린이유괴, 랍치사건들도 끊기지 않고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두고 각계에서 《인간성이 사

라진 아동학대사회》, 《아동이 어른들의 무관심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 《명색이 부모인데 어린 생명을 상대로 극악무도한짓을 저지르는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처음엔 부모, 다음엔 악한으로 만드는 이 사회의 인간성이 한없이 추락하니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다.》, 《이 사회에 야만의 시대가 흐르고있다.》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울려나오고있다.

성인들, 부모들의 이러한 아동학대행위는 곧 그 자식들, 청소년들의 정신적성장에 영향을 주기마련이다.

어릴적부터 아동학대를 보고 듣고 겪으면서 자랐고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과 말세기적인 생활풍조, 패륜패덕과 극도의 향락주의와 개인리기주의,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론리에 물젖은 소년, 소녀들이 다 자라 성인이 된다면 또 이러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부모가 된다면 또 그들의 자식들, 그들앞에 선 아이들은 또 다른 아동학대의 대상들이 될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이다.

아동학대범죄들, 그것은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개인리기주의가 만연되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몸서리치는 인간생지옥 남조선사회의 축도이다.

오죽했으면 언론들이 아동학대사건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에 깊숙이 뿌리박힌 병폐중의 최악의 병폐》, 《세대를 이어 유전되는 이 사회의 무서운 인권말살, 도덕말살유전자의 광기》라고 평하였겠는가.

고통과 악몽속에 시달리다가 망울을 피워보지도 못한채 조용히 땅에 묻힌 수많은 어린이들의 기구한 운명

은 묻고있다.

수많은 아동들이 과연 부모를 잘못 만나 수난자로 되였는가. 또 자식들,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들, 인간들은 처음부터 어린이앞에서조차 악마였고 악한이였는가.

아니다. 그것은 남조선을 약육강식의 법칙이 란무하는 사람 못살 생지옥, 인권의 동토대로 만든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통치배들의 악정이 강요한 불행이다.

아동학대사건이 터질 때마다 괴뢰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을 통과시킨다 어쩐다 분주탕을 피워대지만 그런 행차후 나발로는 아동학대범죄를 막을수 없다는것이 지금 각계의 일치한 평가이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어린 생명의 성장과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사회악>》이라고 하면서 《당국의 아동학대방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속에서 제2, 제3의 <정인이>들이 계속 나올것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반인민적사회제도와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남조선은 어린이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사회, 부모를 악마로 만드는 아동지옥이라는 오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로인들의 형편도 다를바없다.

근 40%에 달하는 로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고있으며 그중 절대다수가 늙고 병든 몸을 끌고 몇푼 안되는 돈을 벌기 위해 별의별 험한 일을 다하고있다.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로인들의 경제적고통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2023년예산에서 《공공형로인일자리사업》몫을 뭉텅 잘라내였으며 결과적으로 빈곤층로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있다.

로인들에 대한 학대도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병든 어머니를 아들이 길에 버리고 달아나는 사건, 치매를 앓는 부모를 자식이 살해하는 사건, 돈을 못번다는 리유로 안해와 딸이 80대의 로인을 집에서 내쫓는 사건 등 자기를 키운 부모를 학대하고 지어 살해하는 패륜범죄가 그치지 않고 발생하고있다. 자식에게 매맞고 쫓겨나는 로인학대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속에 로인들은 《얼른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난다.》고 하면서 자식과 사회를 원망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정신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자들의 신세는 더욱 불쌍하다.

2023년 2월 남조선의 여론조사기관이 장애자 2 0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자차별현황》을 조사한 결과 60.3%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수단들을 리용할 때 가장 심하게 차별당하고있으며 32%가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그안에서 이동할 때에 차별을 체험하였고 21.9%가 현금대출을 받을 때 차별받기가 일쑤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하기에 남조선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페련대(전장련)》라는 장애자단체가 장애자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실현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난해부터 1년이 넘게 벌리고있다.

《전장련》소속의 장애자들은 출근시간에 지하철도에 올라 《이동하고 교육받고 로동하며 함께 살자!》라

는 구호를 들고 시민들과 당국자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역도는 《전장련시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폭언을 늘어놓으며 경찰을 내몰아 그들의 시위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가 하면 《정부》예산에도 장애자들이 요구한 지원액수의 0.8%밖에 반영하지 않았다.

얼마전 경기도 평택시의 《장애자거주시설》에서 한 장애자가 폭행을 당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해당 시설책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당국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2022년 5월에는 친어머니가 발달장애자인 자식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40대녀성이 6살 난 장애자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고 60대녀성이 30대장애자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는 등 장애자부모들이 저주로운 사회를 원망하며 자식을 살해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2022년 4월 서울의 청와대린근으로는 각지에서 2 000여명의 발달장애자부모들이 모여들었다.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역도의 《공약》에 《장애자지원정책》이 전혀 없는것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이들을 서울로 향하게 한것이였다.

그날 시위에 참가한 장애자부모들중 무려 550여명이 《발달장애인 24시간지원체계구축》을 눈물겹게 호소하면서 삭발을 단행했다.

하지만 어린이와 로인, 장애자를 비롯한 사회적약자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남조선사회제도자체가 개변되지 않는한 언제 가도 그들은 인권과 권리를 지켜낼수 없다.

□ 《허가》받은 인권유린장

《참다참다 못견디면 맞아죽거나 자살하고 아니면 동료를 죽여야 하는 군의 현실앞에 입대할 아들을 둔 부모들의 불안은 커만 간다.》

이것은 괴뢰군사병들이 당하는 인권침해를 폭로한 어느한 언론의 기사이다.

내가 살자면 너를 죽여야 하는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공공연히 작용하고있는 곳이 바로 남조선괴뢰군이다.

《군기확립》, 《상명하복》이라는 미명하에 구타와 폭행, 기합과 같은 비인간적행위들이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감행되고 인민들을 대상으로 살륙과 략탈, 성폭행과 방화와 같은 범죄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야수의 무리가 바로 남조선괴뢰군이다.

1980년대에 《전과자들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괴뢰군에 강제로 끌고가 고문하고 폭행한 끝에 수백여명의 사망자와 수천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삼청교육대사건》만 놓고보아도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수조차 없는 괴뢰군의 실태를 잘 알수 있다.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으로서의 괴뢰군의 실체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언젠가 괴뢰군에서는 부대내에서 항시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던 한 병장이 사병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란사하여 여러명을 죽이고 부상입히는 《임병장사건》과 한 일병이 상급들로부터 한달이상 모진 구타와 폭행, 기합을 당하다가 끝내 숨진 《윤일병사건》이 터져 여론의 도마우에 오른적이 있었다.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났지만 괴뢰군내부의 인권침해실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괴뢰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5년동안 괴뢰군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0여명을 헤아리며 그중 70%에 해당하는 성원들이 자살하였다고 한다. 나머지 사망자들의 사망원인도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라고 하지만 그들중에서 적지 않은 몫이 자살이나 폭행에 의한 타살일것이라는것이 남조선여론의 일반적평가이다.

괴뢰군내부에서 발생한 자살사건들을 두고 괴뢰국방부는 70%이상의 사건이 《내성적성격》, 《허약한 체질》, 《지병》 등 자살자개인의 일때문에 일어난것으로 몰아붙이고있으며 지어 《애인의 변심》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여론도 돌리고있다. 폭언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와 과도한 업무 등이 원인이라고 인정한것은 10%도 되지 않는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사망자의 부모들과 가족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실을 밝혀줄것을 요구하고있지만 그

들의 웨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되여 울릴뿐이다.

최근시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라는 기관이 괴뢰군에서 발생한 수천건의 사망사건들을 조사하고있다고 한다.

그 많은 사망사건들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일일이 확인한다는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일부에 한해서는 진실을 규명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위원회가 군의 판단을 뒤집은 154건의 사망사건에서는 군이 주목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숨기려고 했던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은 페쇄적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됐던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였다. 그 배경에는 비일비재했던 폭력을 방조하고 때로는 <군기를 세운다.>는 리유로 부추겼던 장교들의 무관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괴뢰군내부에서 인권침해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그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다보니 2021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자살을 포함한 각종 사망사고들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2023년 9월까지만 존속시킬것이라고 하면서 괴뢰군내부의 비참한 인권실태를 덮어버리는데만 급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괴뢰군부패거리들도 해괴하기 그지없는 《자살방지대책》들을 내놓으며 만사람의 조소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괴뢰군에 징집되였던 한 청년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입대 첫날 훈련소에서 전투복을 지급했다. 조교들은 전투복을 나눠주자마자 야전상의(야상)에서 허리끈을 빼서 압수했다. <자살방지>목적이였다. 순간 훈련병들은 <자살>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혔다. … 훈련소퇴소날까지 <자살>이라는 단어는 주된 관심사가 됐다. 옆부대 훈련병이 수류탄훈련하다 자살했다더라, 전투화끈으로 목을 맸다더라 하는 괴담이 흉흉하게 들려왔다. 야상끈압수가 자살로부터 얼마나 우리를 보호했는지는 알수 없다. 분명한것은 <자살은 생각도 하지 마.>방침이 모두에게 자살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2022년 9월에도 괴뢰해군이 모든 신병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으로 《자살우려자등급분류》를 해놓은 사실이 드러나 《사병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탄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직제가 2022년 7월 《인권위원회》안에 처음 만들어진 때로부터 불과 50일도 안되여 자살과 총기사고 등으로 23명이 사망한것을 비롯하여 괴뢰군안에서 인권침해로 인한 사망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지금 괴뢰군내에서 사병들이 정신적, 육체적폭행을 피해 탈영하는것쯤은 일상사로 되고있으며 심지어 2022년 3월에는 해병대에서 폭력과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탈영한 사병이 멀리 유럽에까지 도망쳐 괴뢰군부가

《체포작전》을 벌리느라 복닥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성들과 그 녀편네들까지 사병들을 머슴처럼 제 집에 끌고가 이러저러한 잡일을 시키고 폭언, 폭행을 일삼는것을 비롯하여 괴뢰군내부에서의 인권침해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괴뢰군살이를 하다가 각종 사건사고로 부상당하고 제대되는 사병들의 신세도 불쌍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아무런 보상도 진상규명도 없이 짧게는 몇달, 길게는 몇년씩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비조차 얻을수 없어 페인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또한 괴뢰군내부에서는 성폭행과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도 급증하고있다.

2021년 5월 괴뢰공군부대에서 상급들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따돌림을 받다가 다른 부대로 조동되여서도 《맨날 신고만 하는 이상한 녀자》라는 싸늘한 눈초리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야만 《리예람중사자살사건》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로부터 1년후에는 같은 부대에서 20대의 녀성하사가 또 자살하여 괴뢰군과 사회를 벌둥지쑤셔놓은것처럼 만들었다. 2023년 1월에는 괴뢰국방대학교 교수의 탈을 쓰고있는 현역장교 3명이 부하녀직원 1명을 차례로 성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여 파문을 일으켰다.

오죽했으면 유엔인권리사회가 나서서 《남조선군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라.》고 권고했겠는가.

이처럼 괴뢰군에 있는 적지 않은 녀성들이 장성으로부터 직속상관에 이르기까지 상급들의 성범죄대상으

로 되고있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의 요구에 응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후에 수치감을 참을길 없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대부분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기각, 무혐의 등으로 벌을 받지 않고있다.

상관에게서 매일같이 성추행과 폭언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녀성대위는 운명직전 자기의 유서에 이렇게 썼다.

《영원히 저주할것입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당신과 군을. 제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수 있을가요. 짓밟힌 제 명예로는 더는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녀성 한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썩어문드러진 괴뢰군내에서 처참하게 인권을 짓밟히다가 청춘도 채 꽃피우지 못하고 간 수많은 청년들의 울분의 토로이다.

□ 반인민적악정이 초래한 인재

2022년 8월 남조선의 여러곳에서는 100년이래 있어보지 못한 폭우가 쏟아져내렸다. 특히 서울에서는 8월 8일밤 한시간동안에 150㎜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져내려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있던 3명의 일가족을 포함하여 여러명이 사망하고 주택들이 침수되는 등 인적, 물질적피해가 발생하였다.

그외에도 천수백세대에 수천명에 달하는 리재민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폭우와 태풍, 산불과 화재, 지진 등 자연재해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집과 가산은 물론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것은 가난하고 권세없는 백성들이다. 또 그들의 경제적권리와 생존권을 무참히 빼앗아가는 재난들의 원인을 따지고보면 명백히 인재이며 남조선사회의 구조적모순이 초래한 인권침해이다.

우에서 렬거한 폭우재난의 사망자들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그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사실 반지하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비극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여왔다. 도로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하였기에 대부분의 반지하주택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속수무책으로 화를 입을수밖에 없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나 로약자들은 피할새도 없다.

서울에만도 이런 반지하주택에서 사는 세대수가 20만을 넘는다고 한다. 반지하주택에서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면 물이 넘칠가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다면 폭우가 쏟아져내려 숱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괴뢰당국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당시의 폭우는 기상예보로 예고된것이였다.

하지만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역도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마음편히 서초동의 집으로 퇴근하였다.

그리고는 다음날 폭우로 일가족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현장에 나타나서는 《퇴근하면서 보니 아래쪽에 있는 아빠트들은 침수가 시작됐더라.》, 《왜 탈출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등 동에 닿지 않는 소리만 중얼거렸다. 신통히도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어디 처박혀있다가 7시간만에 나타나서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구조하지 못하냐.》고 야단치던 박근혜역도의 망동을 그대로 닮은 추태였다.

며칠후 폭우피해복구를 한답시고 나타난 여당인 《국민의 힘》패거리들 역시 《솔직히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오게.》라고 지껄여대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런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앉아있으니 자연재해도 인재로 되여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것이다.

인재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있다.

2023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달동네》인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여기저기에서 집없는 사람들이 모여와 비닐박막과 합판으로 얼기설기 지은 집들이 몰켜있는 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60여채의 집들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령하 17℃를 오르내리는 추위속에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았지만 당국은 강건너 불보듯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결국 리재민들중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떠돌지 않으면 안되였다.

3월과 4월에 들어서서는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

였다.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일어난 산불로 수십채의 주택과 축사, 창고들이 불에 타고 축구경기장 2 000개의 면적에 해당되는 산림이 불에 타버렸는가 하면 남강원도 강릉시에서는 축구경기장 500여개의 면적에 해당되는 산림이 불타버리고 십여명의 부상자와 주택, 호텔 등 수십채의 건물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불타버리였다. 거기에다가 해당 지역에서 집과 가산을 잃은 수많은 리재민들이 발생하였다.

산불은 해마다 발생하고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여러해가 지나도록 가셔지지 못하고있어 리재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있다.

리재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대책을 세워야 할 당국자들은 말로만 《피해복구》를 떠들면서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있다.

지어 2023년 3월에 남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괴뢰여당인 《국민의 힘》소속의 남강원도 지사라는자는 산불확산을 막을 대신 골프련습장에 가서 골프놀이를 하고는 식당에 가서 술까지 마셔댔다. 같은 당소속의 충청북도 지사라는자도 산불이 일어났을 때 술판을 벌려놓아 사람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이런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어찌 리재민들의 가슴속에서 피눈물이 흐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괴뢰당국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몇푼 안되는 지원금을 리재민들에게 내여주고 생색을 내고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것이다. 결국 리재민들은 은행에

서 높은 리자로 돈을 꿔서 피해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그것이 결국 올가미가 되여 경제적파산에 처하고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피해 같은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윤석열역도와 그자를 닮은 권력자나부랭이들이 살판치는 남조선사회에서는 언제 가도 자연재해 아닌 인재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행과 고통이 가셔질수 없다.

하기에 각계층은 반인민적악정을 일삼고 저들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2022년 8월 폭우때 윤석열역도의 행태를 두고 언론들은 《재난상황에서 집에 갇혀 아무것도 안하는 <대통령>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인 윤<정부>밑에서 국민은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고 성토하였다.

또한 그 재난들이 《취임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고 한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옮기는것보다 폭우와 화재,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것이 옳은게 아닌가.》라고 반문하였다.

《국민의 힘》패거리들이 보인 몰지각한 행태를 두고서도 각계층은 《폭우피해자들을 두번 울린 여당의원들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골프나 쳐라.》고 하면서 울분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반인민적악정만을 일삼으며 민생에는 무관심한 위정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있는 남조선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 같은것을 기대한다는것은 영구동토대에서 식물이 자라기를 바라는것과 마찬가지이다.

4. 침략자의 군화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남조선땅에 미제가 피묻은 군화발을 들이민 때로부터 78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강점후 불과 5년만에 전 조선을 집어삼킬 목적으로 북침전쟁을 일으킨 미제는 전쟁기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 우리 민족에게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 전후부터 오늘까지도 미국은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저들의 침략전쟁연습장으로 만들어놓고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있다.

미국은 남조선땅을 제 마음대로 빼앗아 저들의 군사기지와 훈련장으로 만들어놓음으로써 인민들의 삶을 송두리채 짓밟고있다.

남조선강점직후부터 아무런 허가도 없이 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곳곳에 군사기지와 훈련장을 만들기 시작한 미국은 1953년 10월 괴뢰들과 《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제4조에는 《호상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륙군, 해군, 공군을 남조선의 령토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남조선은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여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남조선의 《령토주권》은 미국에 완전히 넘어갔다. 미국은 저들이 군사전략상 필요한

곳이라면 아무런 제한없이 빼앗아 저들의 목적에 리용할 수 있게 된것이다.

이 조항을 턱대고 미국은 지난 70년세월 남조선 전 지역에 비행장과 항구 등을 제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는 알려진것만 하여도 100여개에 달하며 그 면적은 총 수백㎢에 달한다.

2002년 3월 미국은 저들의 안전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강이북의 미군기지들을 한강이남으로 옮기기 위해 그 지역의 땅을 빼앗기 위한 《련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것을 괴뢰당국과 체결하였다.

그후 미국은 괴뢰들을 강박하여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의 근 1 500만㎡에 달하는 부지에 미군의 해외주둔기지로는 제일 큰 미군기지를 10년동안 건설하였다.

그 기간 100억US$가 넘는 미군기지건설비의 90%이상을 괴뢰당국이 섬겨바친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추리에서 살던 수백세대의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땅과 집을 잃고 강제로 쫓겨난것이다. 미군기지이전계획이 발표된 때로부터 대추리주민들은 물론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900여일동안이나 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을 벌리였지만 괴뢰당국은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하여 시위를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끝내 땅을 빼앗아냈다.

오늘날 《캠프 험프리스》로 불리우고있는 평택미군기지때문에 대추리라는 지명도 사라져버리였다.

이것은 비단 대추리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미군기지가 틀고앉은 곳마다에서 인민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이다.

2023년 4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도시 한복판의 야산에 미군사격훈련장건설이 시작되였다. 주변에 아빠트들과 상업봉사시설 등이 늘어선 지역에 사격훈련장을 건설하면서도 미군은 《호상방위조약》 제4조의 부속협정인 《행정협정》을 구실로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사격소음과 도탄된 총탄피해를 우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당장 공사를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행정협정》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있다.

이 한가지 사실을 놓고서도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인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세월 군사기지내의 땅과 하천을 심히 오염시킨 환경파괴범죄의 주범이기도 하다.

2002년이후 미국은 한강이북지역의 군사기지들을 비롯한 일부 기지들을 평택기지로 통합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해당 지역 토지를 괴뢰당국에 반환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군사기지지역의 토지와 하천오염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이 측정한데 의하면 미군기지내의 토양들은 여러가지 중금속들과 유기화합물들로 심하게 오염되여있었다. 미군은 토양을 오염시킨것도 부족하여 기지주변의 한강과 락동강으로도 페기물들을 아무꺼리낌없이 그대로 버림으로써 강하천들도 심하게 오염시키였다. 지어 살아있는 탄저균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생물무기시험을 하고는 그 페기물들까지 마구 버림으로

써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심히 위협하였다.

하지만 력대 괴뢰당국자들은 미군의 이와 같은 만행을 묵인하였으며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비용까지도 말아안아 인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현 윤석열역도도 조금도 다를바없다.

이자가 지금 틀고앉은 《룡와대》주변의 룡산땅은 본래 미군기지지역으로서 일부 토지가 반환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미군부대들이 주변에 주둔하고있다.

《룡와대》코앞의 토지도 반환된 미군기지지역이다. 여기에서 2021년에 《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환경조사에서는 석유화합물은 기준치의 36배, 아연, 비소를 비롯한 중금속과 독성물질들도 기준치의 수십배가 검출되였다. 하여 괴뢰당국은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하루 2시간이상 머물지 말것을 통보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도는 오염정화는 하지도 않은 이 지역의 수십만㎡의 땅에 흙이나 대충 덮어놓고 잔디와 나무나 몇그루 심어놓고는 《어린이정원》이라는 명칭으로 개방하였다.

어린이들마저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피해를 받게 하려는 역도의 이러한 처사를 두고 환경단체들과 야당인사들은 《오염토양정화과정없이 흙덮고 꽃심어 어린이를 초대한다는것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것》, 《<대통령실>졸속이전도 모자라 졸속토양오염정화를 통해 아이들 건강을 담보로 정치광대극을 하고있다.》, 《흙으로 미군의 환경범죄까지 덮으려는 처사》라고 강

력히 반발하였다.

미국은 수많은 남조선청년들을 저들의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세움으로써 그들의 청춘과 생명도 무참히 짓밟았다.

1950년의 이른바 《대전협정》으로 리승만역도로부터 괴뢰군통수권을 빼앗아낸 미국은 괴뢰군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내세우는것도 부족하여 남조선청년들을 《카투사》라는 명칭으로 미군에 강제로 징집하였다.

1950년 8월 대구와 부산에서 길가던 장정들을 강제로 끌고가는것으로 시작된 《카투사》징집인원수는 조선전쟁기간에도 수만명에 달하였다. 2023년 5월 한 언론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쟁기간 《카투사》사망, 실종률은 미군사망률의 10배에 달하였다고 한다. 결국 수많은 남조선청년들이 미국의 대포밥이 되여 속절없이 사라져버린것이다.

오늘도 남조선강점 미군에는 수천명에 달하는 《카투사》들이 고용살이를 하면서 인권을 침해당하고있다.

전후에도 미국은 괴뢰군을 웰남전쟁을 비롯한 침략전쟁에 대포밥으로 내몰았다. 웰남전쟁터에 괴뢰군 연 32만명이 끌려가 그중 5 000여명이 목숨을 잃고 1만 6 0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수만여명이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피해를 당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벌려놓는 침략전쟁터들에 수많은 남조선청장년들이 미군의 대포밥으로 끌려갔다.

미군은 지난 수십년세월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도

치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은 남조선주민들의 존엄이나 생명 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부평소년직승기궤짝사건》, 《동두천녀인삭발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중학생학살사건》 등 세상을 경악케 한 치떨리는 야수적만행들이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최근년간에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놈들이 지하철도에서 20대녀성을 집단적으로 성추행한 사건, 식당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서울 한복판에서 주민들에게 공기총을 마구 란사한 사건을 비롯하여 미군범죄가 꼬리를 물고일어나고있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주민들은 물가의 오리나 산속의 꿩, 들쥐에 지나지 않으며 녀성들은 한갖 성노리개일따름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에 의해 모든것을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하여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데조차 없다.

괴뢰패당은 남조선강점 미군에 의한 범죄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인권을 침해당해도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 얽매여 범죄자를 처벌할 권한조차 없다. 친미, 숭미사대굴종사상이 골수에 사무친 력대 괴뢰당국자들은 인민들이 미군의 만행을 반대하여 집회나 시위같은 투쟁을 벌리여도 《동맹관계가 손상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편에 서서 피해자들을 모독해왔다.

결국 치외법권을 누리는 미제침략군에게 있어서 남조선은 《천국》으로 되고있다.

오죽하면 출판물들이 《남조선은 미국에 예속된 무주권지역》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땅인지 모르겠다.》

고 개탄하고있겠는가. 미국에 의해 자주권을 완전히 유린당한 남조선에서 인권문제는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현 보수패당이 집권한 이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괴뢰당국의 비호, 묵인하에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더욱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괴뢰국회에 제기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한해 평균 수백건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있으며 그중 살인, 강도, 강간, 구타 등 강력범죄는 60%에 달하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서 뻔질나게 벌어지는 미제침략군의 전쟁연습소동에 의해서도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있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에 위치했던 미공군의 사격훈련장에서만도 수십년세월 소음과 폭탄파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4천여명에 달하고 수백채의 가옥이 파손되였으며 오폭과 불발탄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13명, 소음공해를 비롯한 미군의 만행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들도 수십여명에 달하였다.

매향리뿐 아니라 곳곳에서 미군비행기의 굉음과 불발탄 등으로 인해 오늘도 수많은 인민들이 피해를 당하고있다. 2023년 5월에도 전쟁연습에 광분하던 미공군소속의 《F-16》전투기가 경기도 평택시의 민가주변에 추락하여 그곳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유지비용까지도 괴뢰들이 부담하도록 하고있으며 그 액수를 늘일것을 계속 강박하고있다. 하여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천문학적액수의 혈세가 해마다 《방위비분담금》이라

는 명목으로 미군에 섬겨바쳐지고있다.

이처럼 남조선강점 미군은 지난 수십년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염과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로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처참히 짓밟은 야수의 무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한미동맹》이라는 예속과 굴종의 멍에를 더 깊이 쓰고있어 만사람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이런 쓸개빠진 민족반역자,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불행이 아닐수 없다.

지금 각계층은 《오로지 미국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자, 미국에 의지해 권력을 유지하려는자, 우리는 이를 매국노라 부를수밖에 없다.》고 역도의 죄행을 성토하고있다.

× ×

우에서 렬거한 사실들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세계최악의 식민지이며 파쑈독재와 부정부패, 온갖 범죄가 살판치는 남조선에서 인권을 론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우기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 파쑈독재광인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이후 인권페허지대로 더더욱 전락된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불리우고있는 남조선사회의 비참상은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극악한 인권교살자, 인권유린의 왕초임을 명백히 고발해주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상을 가리우고 민심과 여론의 반《정부》투쟁기운을 딴데로 돌려보려 하고있지만 극악한 인권교살자인 저들의 추악한 정체와 세계최악의 인권페허지대인 남조선의 진모습을 절대로 숨길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인권동토대

집 필 김영일
편 성 김일미
장 정 채대성 교 정 림 향

내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7월 19일
발 행 주체112(2023)년 7월 21일

ㄱ－1609ㄷ

ISBN 978-9946-31-175-3

ISBN 978-9946-31-175-3